

- 주요 뉴스: 미국 경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과 투자자 신뢰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
  - ECB 드 갈로 위원, 경제 지표에 따라 신속 대응할 방침.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화
  - 중국,美中 무역갈등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업체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노력
  - 일본, 미국과의 환율 논의에서 공정성 강조할 방침. 미국産 에너지 수입 확대 고려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對中 무역전쟁 지속, 연준 파월 의장 발언 등이 영향
  - 주가 하락[-1.5%], 달러화 약세[-0.9%], 금리 하락[-1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AI 칩 對中 수출 규제, '파월 푯' 전망 약화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관세 유연화 기대와 ECB 금리인하 등으로 4.0%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경기침체 현실화 가능성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1.0%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저가 매수 유입 등으로 하락  
독일은 ECB 금리인하 및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0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0.2% 상승, 한국 CDS 하락

|    |      | 4/18일   | 4/11일   | 전주말대비  |                 |       | 4/18일 | 4/11일   | 전주말대비   |
|----|------|---------|---------|--------|-----------------|-------|-------|---------|---------|
| 주가 | 미국   | 휴장      | 5,363.4 | -1.50% | 국채<br>금리<br>10y | 미국    | 휴장    | 4.49%   | -16bp   |
|    | 유럽   | 휴장      | 486.80  | +4.03% |                 | 독일    | 휴장    | 2.57%   | -10bp   |
|    | 중국   | 3,276.7 | 3,238.2 | +1.19% |                 | 영국    | 휴장    | 4.75%   | -19bp   |
|    | 일본   | 34,730  | 33,586  | +3.41% | CDS<br>5y       | 한국    | 35bp  | 37bp    | -2bp    |
|    | 한국   | 2,483.4 | 2,432.7 | +2.08% |                 | 중국    | 67bp  | 75bp    | -8bp    |
| 환율 | 달러지수 | 99.23   | 100.10  | -0.87% | 위험<br>지표        | EMBI+ | 휴장    | 429     | +30bp   |
|    | 유로화  | 1.1393  | 1.1355  | +0.33% |                 | VIX   | 휴장    | 37.56   | -21.06% |
|    | 엔화   | 142.18  | 143.54  | +0.96% |                 | WTI유  | 휴장    | 61.50   | +5.17%  |
|    | 위안화  | 7.2997  | 7.2921  | -0.10% | 원자재             | 구리    | 휴장    | 452.3   | +4.78%  |
|    | 원화   | 1,423.3 | 1,421.0 | -0.16% |                 | 금     | 휴장    | 3,237.6 | +2.76%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4/18일 휴장일 변화율은 전일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 금일의 포커스

### ■ 미국 경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과 투자자 신뢰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

- 오랫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고, 이는 장기간의 양호한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투자자 신뢰도 악화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주요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자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확산. 실제로 다수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경제 성장을 전망을 하향 조정. 아울러 국채수익률이 상승하면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
-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우려가 증폭되면서 글로벌 자금의 脫미국 현상이 심화.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정책 당국인 재무부와 연준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예측 가능성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은 이를 어렵게 만드는 모습. 특히 연준에 매우 공격적인 입장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대외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
- 이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문제 해결은 어려울 소지. 다만 일부에서는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재무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Bloomberg). 트럼프 1기 당시 므누친 재무장관은 트럼프의 주요 경제 의제에 충성심을 나타냈지만, 동시에 여타 정부 및 금융권에 중재자로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 이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및 내각과 투자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뿐 아니라 세계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우려

##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 위협에 불만

-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는 통화정책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에 동의한다고 주장.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연준은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

■ JPMorgan, 트럼프 관세정책은 미국의 경기침체 초래할 우려. 특히 고물가를 경계

- 관세 인상으로 전반적인 비용 지출이 증가하여, 2/4 혹은 3/4분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평가. 이러한 여파로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마이너스 전환 및 경기의 침체국면 진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투자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

■ ECB 드 갈로 위원, 경제 지표에 따라 신속 대응할 방침.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화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드 갈로 위원은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며, 최신 경제지표들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 한편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상황이 어렵게 되면 러-우 종전 중재 중단도 가능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한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된다면, 해당국이 중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를 용의도 있다고 발언. 다만, 결국에는 양국의 신속한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

■ 중국, 미중 무역갈등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업체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노력

- 상무부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리창 총리는 부동산 시장 및 증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시. 이 또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 한편 중국의 셰펑 주미대사는 타국이 관세 및 무역전쟁을 강요한다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 다만 이제는 무역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고 첨언

■ 일본, 미국과의 환율 논의에서 공정성 강조할 방침. 미국産 에너지 수입 확대 고려

- 이시바 총리는 환율 관련 미국과 의견을 교환할 때 공정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첨언. 여타 주요 매체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21 현지시각 기준)

-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독일 부활절 휴장

##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 미국 트럼프의 주요 정책, 결과적으로 투자자 및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 - WSJ

(Who Will Pay the Price for Trump's Economic Goals?)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재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강조. 수십 년간 미국은 무역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외국인 자본 유입에 의존. 하지만 트럼프 정책은 무역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자본수지 흑자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국제수지의 균형을 붕괴시킬 위험
-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충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 ▲관세로 인한 소비자 가격 상승 및 소비 감소, ▲외국 자본 유입 감소에 따른 금리 상승, ▲주가 하락, ▲달러화 약세. 트럼프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미국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 비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

### ■ 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 글로벌 기술 산업 공급망의 현실을 간과 - Financial Times

(Tariffs ignore the reality of global tech supply chains)

- 얼마 전까지 Nvidia는 미국 경제의 강점을 상징했으나 현재는 트럼프 무역정책으로 인한 기업 리스크의 전형적 사례로 부각. Nvidia는 對中 수출제한으로 약 55억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무역전쟁이 초래할 기술 산업 교란의 신호탄일 가능성. 이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3가지 교훈이 도출
- 첫째, 기술 공급망은 국제화되어 있어 자급자족이 불가능. 둘째, 미국은 공급망 교란에 대해 사전 대비가 미흡. 셋째, 중국은 전시 체제 수준의 대비에 나서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평시 체제로 운영. 이에 투자자들은 Nvidia 사례를 공급망 리스크의 초기 징후로 인식하고 기술 산업 전반의 충격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

### ■ 미국 증시,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는 위험한 선택일 소지 - Financial Times

(The flaky case for buying the dip)

-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 관세정책이 제조업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 팬데믹 이후 급반등한 경험 등이 저가 매수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보수적 입장.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기업 입장에서 국내 제조업 투자 유인이 낮기 때문.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 독일 국채, 스위스 프랑화 등이 강세를 지속. 이는 전문가들이 위험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 **아시아 주요 중앙은행,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선호할 가능성 - 블룸버그**  
(Rate Cuts Anyone? Anyone? Ferris Bueller's Tariff Lesson)
  - 각국의 중앙은행은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통화정책 결정에 어려움 직면. 특히 연준의 양대 책임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모두에서 잠재적 위험 내재. 하지만, 아시아 주요 중앙은행의 경우 미국 무역 압박으로 인한 성장 약화와 중국 저가 물량 공세에 따른 물가 억제 등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여건이 조성
  - 최근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는 금리인상 기조 유지에서 한발 물러서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 한국은행 역시 이창용 총재가 1/4분기 GDP 감소 가능성 및 물가상승 압력 완화 등을 이유로 향후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
- **독일 국채 및 유로화 동반 상승, 유로존 안전자산의 선호 강화를 의미 - Financial Times**  
(German bonds rise with euro as investors head for Europe's haven)
- **미국 제조업 부활 목표, 산업정책 없이 관세정책만으로는 달성 난망 - Financial Times**  
(Tariffs without industrial policy won't work)
- **미국의 對중국 해운세 시행, 자국 기업과 소비자 비용 전가로 경제에 부정적 - WSJ**  
(Trump's Shipping Tax Goes Ahead)
- **美中 무역전쟁, 미국의 경제적 혼선 초래와 달리 중국은 대외 영향력 강화 - 블룸버그**  
(China Wins Without Fighting While the US Flails)
- **미국의 트럼프 관세,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학습능력 및 적응력을 시험 - 블룸버그**  
(Tariffs test this crisis leadership skill)

##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mailto:jsjeong@kcif.or.kr)